

무주반딧불축제 전국 최고

2018년도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인센티브 4억1000만원 확보

무주반딧불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8년도 대표축제로 선정되며 최고봉에 올랐다. 이로써 4억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된 무주군은 이제 글로벌 축제를 향한 힘찬 발돋움에 시작한다



무주반딧불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8년도 대표축제로 선정되며 최고봉에 올랐다. 사진은 반디 길놀이

무주반딧불축제는 반디원정대(신비탐사)와 반디별 찾기, 생태탐험, 주제관 마을로 가는 축제 등 환경 지표 곤충 반딧불이와 자연, 환경 등을 즐길 수 있는 주제 집약적인 변화를 시도해 주목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환경축제로서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반딧불이를 연계한 야간축제로 확대한 점, △'무주어리랑' 등 주제공연을 비롯한 전통놀이 시연과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주민동참이 돋보인 점, 그리고 △축제장 공인화 △휴게공간의 확대 및 운영, △문화교육전 및 캠퍼 등 외국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강해 환경·소득·가족축제로서의 특성과 콘텐츠를 잘 살린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의 동력이 된 제2회 무주반딧불축제는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과 '지구를 구하는 작은 별, 반딧불이'를 주요 테마로 해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했다. '신비탐사 프로그램'은 곤충전문가가 동행하며 생태교육을 실시하고 반디탐사증을 발급했던 반디원정대가 추가되면서 큰 인기(8,300여 명 참가)를 모았으며, 반딧불축제 주제관에는 1만여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 됐다. 캠프와 반딧불축제 주요 프로그램들을 패키지로 즐길 수 있었던 '엄마 아빠와 1박 2일 생태탐험(667명)'도 인기를 끌었다. 또 무주지역 곳곳의 매력과 인심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마을로

가는 축제'는 마을자원을 활용해 폭넓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소득기반이 돼 관광객과 주민들 모두에게 각광을 받았다. 농·특산물 특화거리와 향토음식·간식부스, 자원봉사도 제2회 무주반딧불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힘으로 꼽히고 있다. 이성만 위원장은 "관광객들의 넘치는 사랑과 주민들 노력에 무주반딧불축제가 5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이어 대표축제로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라며 "20여년이 지났지만 환경축제라는 것만은 변함없고 축제가 드리는 즐거움은 항상 새롭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주요성과 보고회' 개최

장수군은 28일 군청 회의실에서 한영희 부군수와 간부공무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군수 주재로 2017년 장수군 주요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 보고회에서 군은 올 한해 장수군의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올 한해 장수군의 주요성과로는 ▲계남양로단지 매입 및 전라북도 소방안전타운 유치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장려상 수상 ▲제11회 장수한우랑사과랑 축제 2017년 전북도 최

우수 축제 선정 2018년 국가 지정축제 선정(문광부 육성) ▲세계로마트, 장수한우 2년간 2,000부 납품계약 체결 ▲홍콩 말레이시아, 장수사과 40톤 수출협약 체결 등이 있다. 한영희 부군수는 "올해 부서별 주요 성과를 살펴보니 많은 성과와 발전이 있었다. 이는 공직자들이 군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2018년에도 모든 사업을 군민의 입장에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매아리



무주경찰서 구천파출소, 겨울 스키시즌 교통사고 예방관리

무주경찰서 장인준 구천소장이 28일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무주리조트 스키장 주변 주요 위험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안전점검 및 교통사고 예방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무주경찰서는 스키시즌을 맞아 차량통행량이 많은 덕유산 리조트 주변 상습 정체 구간 도로에 교통관리대 지원 의결을 투입하여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장인준 구천소장은 "겨울철 폭설과 한파로 도로가 얼어붙어 스키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사고위험이 큰 만큼, 구천터널, 응당지역, 교량, 경사로 등 상습 결빙지역의 교통 및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시설 점검을 지속 실시해 나가기로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원불교 좌포지부 이진상 교무, 정수기 12대 기부

진안군 성수면 원불교 좌포지부 이진상 교무가 지역 주민과 훈훈한 겨울나기를 실천하고 있다. 이진상 교무는 그동안 성수면의 크고작은 행사에 봉사를 해 왔으며 병천 등 관광지 청소를 매주 자발적으로 해 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정수기 12대(360만원 상당)를 지역의 어려운 면민과 기관·

단체에 기부했다. 이 교무는 "약소하지만 이 정수기가 면민들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갑용 성수농협조합장은 "이런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데에 대해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삶의 귀감이 되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농한기 심뇌혈관 예방교육

진안군은 농한기를 맞아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진안읍 7개 마을을 대상으로 경로당을 방문해 통합보건서비스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증가하여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군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을 측정하여 개인별 건강상태 체크를 통한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뇌졸중의 원인과 전조증상, 대처방안 교육과 노년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요법 및 식이요법, 올바른 생활습관을 알리는데 목

적을 두고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한편 진안군은 올 한해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해 922명을 대상으로 안전환 및 만성콩팥병 검사비 지원 사업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내년에는 1,100명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고혈압 당뇨병 등관리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병소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교정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관건강을 지킬 수 있다"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을 통해 주민 스스로 혈관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방 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한누리시네마 영화관람료 1000원 인상

내년부터 6000원... 3D 영화는 동결·1월 한달 1000원 무료할인쿠폰 제공

장수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인 대상 영화관람료를 기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국내 작은 영화관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영화배급사들이 도시지역과 형평성을 제기하여 결정됐다. 다만, 장애인, 청소년, 군인 등은 당초 5,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3D 영화 관람료도 8,000원으로 동결됐다. 이러한 영화관람료 인상에 대한 주

민들의 변화 적응을 위해 내년 1월 한달 간은 한누리시네마에서 1,000원 무료 할인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2010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문을 연 한누리시네마는 개관 이후 최신 개봉작을 저렴한 가격(일반영화 5,000원, 3D영화 8,000원)으로 7년 넘게 지역주민들에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관람객 수는 매년 증가해 2015년 4만4,000여명, 2016년 기준 4만5,000여명이 넘었다.

한누리시네마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최신 개봉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목적으로 개관했다. 아울러, 장수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장수군 관내 여러 기관 단체 중 지역 주민들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으로 한누리시네마를 선정해 감사패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한누리시네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화 1편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훈훈함을 선사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읍면 맞춤형 복지차량 전달

무주군은 28일 군청 앞마당에서 읍면 복지 허브와 맞춤형 복지차량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20여 명이 함께했으며, 무주읍과 인성면에 전기차량 각 1대씩이 적상면과 부남에 가솔린 차량 각 1대씩이 전달됐다. 맞춤형 복지차량은 찾아가는 복지상당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위기기쁨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동성과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으로, 구인근로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은 국비를 포함해 총 1억3,700여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장효순 과장은 "올해 각 읍면으로 전달된 복지차량들은 각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웃들을 찾아 나서는 고마운 발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청정농산물 판매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사업과
063-430-2951